

■ 지방선거 핫코너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에 '시끌'

광주지역 모 일간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되자 일부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이 다른 후보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 측은 갑질 경선위원회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지역 모 일간지에 압박을 가해 오늘 보도될 예정이었던 광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못하는 아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제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후보가 과연 광주시장 후보자격이 있느냐?”라며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용화 “민주당 후보만 TV토론, 편파적”

정용화 한나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에 대해 집권 여당 후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 취지를 탓할 수는 없지만 2~3일 간격으로 3차례나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다”며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이는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전파 낭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여당 후보도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박준영 선거사무실 개소…경선전 박차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대궁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기업 2천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 인구 200만 명의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서 압승한 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나후된 전남의 운명을 바꿔 전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기병 “오늘 선거사무실 개소”

이기병 전남도의원(나주 제1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는 2일 오후 2시 나주시 성복동 대궁빌딩 3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4년 간의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나주 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희망을 주는 감동정치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지방선거 핫코너

윤기선 “농산어촌 학교 집중 투자해야”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사립고는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하고, 일등만을 원하는 경쟁지상주의적 교육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타 지역에서 자율형 사립고 입시비리로 무더기 정계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이를 학교에선 벌써부터 영어·수학 수업에만 치중하는 등 입시전문화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전남의 농어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학생 모두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교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이 이뤄져야만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완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시장 선거에 나선다. 이병완 후보는 “6월 지방선거를 광주시장도 뽑고, 광주의 새로운 대권 후보를 키우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광주시민의 비서실장이 돼 지역의 모든 금기와 성역에 도전, 광주시의 적폐를 대청소 하는 개혁시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이병완 광주시장 캠프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김대식 “영산강 저층수, 목포 방류 안돼”

김대식 한나리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한국 농어촌공사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오니(찌꺼기)나 다크없는 죄악의 수질인 저층수를 목포 앞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한국 농어촌공사는 저층수 배



제시설을 설치할 때 정화시설 설치 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촌공사는 목포시청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난실 “민주당 심판 대표주자 되겠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민주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심판하는 광주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시의원이자 민주당을 견제하는 유일한 진보정치인으로 활동했다”며 “광주에서 진보적 정치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위한 반 민주당 정치연합군 형성을 제안했다.

이형석 “정당공천제, 입장 표명하라”

이형석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과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송광운 북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 청장은 지난 2009년 1월 밤간된 ‘자치령’ 특집 좌담회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면서 “이는 정권탈환을 목표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당원과 당지자에 모욕”이라며 송 청장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3명 단일화 합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목포시장 예비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다.

목포시장 예비후보인 박홍률 전 국정원 충북지부장,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 민영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기동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로 선배 당원의 의견을 듣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단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은 최기동·정종득·홍영기 예비후보와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최광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광역시 기초의회 2014년 폐지

국회 행정체제개편 합의…군정·구정협의회 설치키로

오는 2014년부터 광역시의 기초의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31일 밤 항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단체장의 경우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구성,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을 비롯해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구체적인 군정·구정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유지된다.

동시에 특별시·광역시 내 과소 인구·면적의 자치구·군의 경우 적정규모로 통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군 통합 완료 이후 도의회·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마련,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군 통합시·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통합기준 작성·공표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의 통합건의 → 통합안 마련 및 보고 →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합 권고 → 지방의회 의결청취 또는 주민 투표 등이 절차를 거쳐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6월 2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면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

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이율리 현직 단체장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선 현직 단체장은 정당정책 홍보 및 선전,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김정일 방중 초읽기…김정은 동행 여부 관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1일 또는 2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1일 “이르면 오늘 밤중에라도 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밀하게 위치(Watch)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오늘부터는 언제라도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중 중국으로 월경(越境)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방문시 전용 특별열차편을 이용해 평양을 출발, 신의주~단동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은 뒤 선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